





### 관직(官職) 해설 연재 (2)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종 2품의 벼슬.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조선 때 돈녕부(敦寧府)에 속한 종 2품의 벼슬.

**동지사(同知事)** 조선 때 종 2품 관직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관청명 위에 동지(同知)를 쓰고 관청명 밑에 사(事)를 사용하였다.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조선 때 삼군부에 속한 종 2품의 벼슬, 대장(大將)이 겸임.

**동지성군관사(同知成均館事)** 조선 때 성균관에 속한 종 2품 벼슬.

**동지원사(同知院使)**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종 2품 벼슬.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조선 때 의금부에 속한 종 2품 벼슬.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조선 때 춘추관에 속한 종 2품 벼슬.

**동침절제사(同僉節制使)** 조선 때 절도사(節度使)에 딸린 종 4품의 무관직.

**만 호(萬戶)** 고려·이조 때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 4품 무관직.

**명덕대부(明德大夫)** 조선의 관계로 승덕대부(崇德大夫)를 개칭한 것.

**명선대부(明善大夫)** 조선 초기 종친들에게 주던 관계로 종 3품의 당상관.

**명신대부(明信大夫)** 조선 초기 의빈(儀賓)에게 주던 종 3품의 관계.

**목 사(牧師)** 조선 때 각 목(牧)의 으뜸 벼슬로 정 3품 관직.

**명위장군(明威將軍)** 고려 때 종 4품의 무산계(武散階).

**무공랑(務功郎)** 조선 때 정 7품의 문반 관계로 종친 및 의빈(儀賓)에게 주었다.

**문 사(文師)** 고려 때 유수관(留守官)이나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속한 9품직.

**문하녹사(門下錄事)**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에 소속된 정 7품의 관직.

**문하사인(門下舍人)** 고려 때 문하부(門下部) 소속의 종 4품의 관직.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고려 때 문하부에 소속된 정 2품의 관직.

**문하시중(門下侍中)** 고려 때 문화성의 최고 관리로 종 1품 관직.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 고려 때 문화부의 관직으로 문하시중을 고쳐부른 것.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고려 때 문화부의 관직으로 문하시중을 고쳐부른 것.

**문하주서(門下注書)** 고려 때 문화부의 종 7품 관직으로 첨의주서(僉議注書)라 한다.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고려 때 문화부의 정 2품 벼슬이며 찬성사(贊成事)라 한다.

**문하평리(門下評理)** 고려 때 문화부(門下部) 소속의 종 2품 관직.

**밀직판원사(密直判院使)**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종 2품 관직.

**밀직원사(密直院事)** 밀직지원사(密直知院事)·밀직사의 종 2품 관직.

**밀직부사(密直府事)** 밀직사(密直事) 소속의 정 3품 관직.

**방어사(防禦使)** 조선 때 지방 관직으로 각

도(道)의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兵權)을 가진 종 2품 벼슬.

**백 호(百戶)** 고려·이조 때 5·6품의 무관직으로 정백하고 무예에 능한 관원.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고려의 정 1품 품계, 벽상공신(壁上功臣)의 무관.

**별 장(別將)** 고려 때 정 7품의 무관직, 조선 때 각 영에 소속된 종 2품의 무관직.

**별 제(別提)** 조선 때 6품의 관리로 6조(六曹)에 속해 있었다.

**별 좌(別坐)** 조선 때 정 5품 또는 종 5품의 관리.

**별효장(別號將)** 조선 때 수원(水原) 총리영(總理營) 소속의 정 3품 군인.

**별후부천총(別後部千總)** 조선 때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된 정 3품의 군인.

**병마사(兵馬使)** 고려 때 동·북 양계(兩界)의 군권을 지휘하는 정 3품 벼슬.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조선 때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 2품의 무관직.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조선 때 각 읍(邑)의 수령(守令)이 겸임하는 군사직.

**병부상서(兵部尙書)** 고려 병부(兵部)의 장관,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 같다.

**병절교위(兼節校尉)** 조선 때의 종 6품에 속하는 무관의 관계(官階).

**병조판서(兵曹判書)** 조선 때 병조(兵曹)의 장관으로 정 2품 지금의 국방부 장관.

**병직랑(兼直郎)**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던 정 5품 동반관계(東班官階).

**보공장군(保功將軍)** 조선 때 무관의 관계(官階)로 종 3품.

**부신금(副愼禽)**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 8품 잡직(雜職).

**부신수(副愼獸)** 조선 때 궁중의 정원을 관리하던 종 9품의 잡직.

**부 위(副尉)**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속한 정 3품의 관직이며 한말의 무관.

**부 윤(府尹)** 조선 때 정 2품 지방 관직으로 부(府)의 우두머리.

**부응교(副應教)** 조선 때 홍문관에서 경서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던 종 4품 관직.

**부 장(部將)** 조선 때 무관직으로 5위(五衛)에 속한 종 6품의 벼슬.

**부 장(副將)** 조선 말의 무관계급, 정 2품이었으며 상장(上將) 밑의 관직.

**부전수(副典需)**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종 6품의 관직.

**부전악(副典樂)**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본 종 6품 관직.

**부전율(副典律)**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본 종 7품 관직.

**부전음(副典音)**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본 종 8품 관직.

**부 정(副正)** 고려 때 각 관청 소속의 종 4품 관직, 조선 때 각 관청의 종 3품관.

**부정자(副正字)** 고려와 조선 때 교서관(校書館)과承文院의 종 9품 관직.

**부제조(副提調)** 조선 때 각 기관에 소속된 정 3품 관직(官職).

**부제학(副提學)**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 3품 관직, 제학(提學)의 다음 벼슬.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고려 때 정 2품의 무산계(武散階).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조선의 정 1품

품계.

**보 덕(輔德)** 조선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가르치던 종 3품 벼슬.

**보신대부(保信大夫)** 조선 초기에 종친에게 주던 종 3품의 관계(官階).

**봉렬대부(奉烈大夫)** 조선 때의 정 4품 관계(官階).

**봉 사(奉事)** 조선의 종 8품 관직.

**봉상대부(奉常大夫)** 고려 때 정 4품의 문산계(文散階).

**봉상시정(奉常侍正)** 조선 때 봉상시 소속의 정 3품 관원.

**봉선대부(奉善大夫)** 고려의 종 4품 문산계(文散階).

**봉성대부(奉成大夫)** 조선의 종 4품 관계로 종친에게만 주었다.

**봉순대부(奉順大夫)** 고려·조선 때 정 3품의 문관 품계(文官品階).

**봉 어(奉御)** 고려 때 각 관청 소속의 정 6품 관직.

**봉의랑(奉議郎)** 조선 때 종 5품의 문관 관계(官階).

**봉익대부(奉翊大夫)** 고려 때 종 2품의 문산계(文散階)·영록대부(榮祿大夫).

**봉정대부(奉正大夫)** 조선 때 종 4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봉직랑(奉直郎)** 조선 때 종 5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봉헌대부(奉憲大夫)** 조선 때 정 2품으로 의빈(儀賓)에게 준 품계(品階).

**부 사(府使)** 고려 때 사(使)의 다음가는 관직으로 5~6품이었다.

**부사과(副司果)**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 6품의 벼슬.

**부사맹(副司猛)**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 8품의 벼슬.

**부사소(副司掃)**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 9품의 잡직(雜職).

**부사안(副司案)**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 7품의 잡직(雜職).

**부사약(副司鑰)**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 6품의 잡직(雜職).

**부사용(副司勇)**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종 9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정(副司正)**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종 7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직(副司直)**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종 5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포(副司舖)**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종 8품의 잡직(雜職).

**부 수(副守)** 조선의 종친부(宗親府)에서 종실과 종친에 관한 일을 보던 종 4품의 관직.

**부수찬(副修撰)** 조선의 홍문관(弘文館)에서 내외(內外)의 경적(經籍)과 문헌(文翰)에 관한 일을 맡아본 종 6품의 벼슬.

**부승지(副承旨)**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 소속의 종 6품, 밀직사로 고친 후 정 3품이 됨.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 3품 관직, 지금의 비서실 차장급.

**부직장(副直長)** 고려 때 정 8품 관직, 조선 때 상서원(尙瑞院) 소속의 정 8품 관직.

**부창정(副倉正)** 고려 때 각 군현(郡縣)에 소속된 지방 관직.



**卞氏延安公派宗中會**  
會長 卞 振 洙  
二十七年(二〇〇六年生)



**卞 振 洙**  
部長 卞 振 洙  
二十九年(五〇〇〇年生)



**卞 鍾 得**  
代表 卞 鍾 得  
二十六世(五〇〇〇年生)



**卞 千 基**  
代表 卞 千 基  
二十九世(四八〇八年生)



**卞 甲 洙**  
代表 卞 甲 洙  
二十七世(三二〇〇年生)

**祝 發 展**

청주시 모종동 삼호APT  
전화: 〇四二-二一七-二七八四  
팩스: 〇四二-二一七-二七八四

서울 龍山區 元曉路 一街 一〇四  
전화: 〇二-七六-〇一〇〇(공인)  
FAX: 〇二-七六-〇一〇〇(공인)  
仁川 南區 朱安五洞 輸出 一層 六號地  
전화: 〇三三-八六八-五〇三  
팩스: 〇三三-八六八-五〇三

서울 銅雀區 倉庫 洞 一四九四  
전화: 〇二-五八三-一〇〇九  
호출: 〇二-五三-一九五六  
팩스: 〇三三-四一五-四五六

서울 鍾路 廣濟醫院 一〇一-1  
전화: 〇二-七七一-一八六〇  
팩스: 〇二-七七一-一八六〇

서울 道峯區 水陰洞 一七〇의 四三  
전화: 〇二-九三三-〇四〇  
팩스: 〇二-九三三-〇四〇







# 卞氏서울·京畿地域宗親會

93.5.22 14時(선릉에서)



지난 5월 22일·토요일 오후 2시 쾌청한 초여름 날씨에 강남구 선릉에서 卞氏서울경기지역 종친회 정기총회를 3년 만에 개최하였는데 참석 한 종원이 100여명에 지 나지 않아 다소 미흡한 감없이 있었으나 大會 延會會長님을 비롯하여 仁川宗親會 榮文부회장 서

亮燮부회장 그리고 총무 在運氏 등 내빈께서 참 석하여 보다 더 즐겁고 반가운 일가 모임이 되 었다.

총무 在會氏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고 汝圭會 長님의 인사말씀과 大會 延會會長님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총무의 경과보고가 있었는데 그 간 3년간 종친회 사무 실을 마련하기 위한 기 금모금을 하여 一,五七 十만원을 모았다고 설명 하였다.



서울·京畿地域宗親會(93.5.22) 선릉에서

지난 5월 30일 11시 에 인천직할시 남구 송 의 4동 소재 수봉공원 내 자유회관 2층 강당 에서 종원 120여명 이 참석 제 4회 인천종 친회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회장 基洙씨는 인사 말로 선조들의 유업을 계승하고 가르침대로 생활하여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도록 노력하 라고 하였다.

총회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자유회관 뒤 잔디 밭에서 참석한 종원 및 가족들이 즐거운 다과 회에서 친목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무 在運

## 제 4 회 종친회 정기총회

새롭게 선임된 濟海회장 은 신입 인사에서 앞 으로 서울 경기지역 종 친회의 발전은 물론 전 국大會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남겨주기 위하여 당선의 선친(先親)께서 남기신 유고(遺學公의 四禮撰 集, 濟溪世稿, 傍先實 蹟, 堤學公文集)를 토 대로 전국적의 종원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 문집들을 수합하여 이를 시고 특히 영도제신총과 신도비전립기금모금에 앞장서서 애써 오셨고



仁川宗親會 정기총회



그리고 심인 濟海회장 에게 선 전임 汝圭회장에 게 그간 10여년간 분회를 이끌어 오심에 탁월한 지도력으로 운영하여 오

또한 서울 경기 지역 종 친회 사무실 기금을 모 금하는데 대한 노고의 보답으로 마련한 감사패 를 서울 경기 지역 전종 원의 이름으로 증정하였 다.

이어서 最洙씨의 종회 발전에 대한 보다 활성 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 언하였는데 서울 경기 지역 종친회는 너무도 방대하여 일괄 통솔하기 가 거의 불가능하니 22 개 구청으로 나누어 진 서울특별시 18개시와 18 개군으로 편성된 경기지 역을 볼 때 총 58개市郡 區가 되니 이에 시군구 단위의 58개지회를 두어 체계적인 지회활동을 함 으로서 종회발전을 기하 나아가 할 것이다라 고하여 전 종원들의 찬 동바수를 받았다. 회의 는 5시에 폐회하고 종친회 에서 마련한 기념품과 그간 받아보지 못한 종 호를 챙겨 가지고 헤어



제 4 회 仁川宗親會모습(93.5.30) 수봉공원에서

## 獻誠金者 名單(廣告協贊金)

※ 온라인번호 국민은행 003-24-0239-292 변정환  
농협 084-01-164444 변정환

世	姓名	住所	電話	金額	世	姓名	住所	電話	金額
27	光 洙	서울	02-822-4114	50,000	30	煜	서울	02-449-0011	200,000
	거창종친회	會源	0598-43-7373	850,000	30	忠 煥	대구	053-421-1500	100,000
		會源	02-676-2181	100,000	30	환 寬	부산	051-247-1551	200,000
30	熙 讚	서울	02-676-2181	100,000	30	泰 龍	대구	053-53-5547	200,000
	清道宗親會	會堂	0542-72-2135	1,000,000	29	海 龍	서울	02-706-0615	100,000
26	鍾 春	서울	02-530-1028	70,000		昌宗親會	會長植	0551-46-1513	300,000
27	洪 洙	서울	02-595-7800	100,000	29	廷 煥	대구	053-256-1172	1,000,000
26	鍾 讚	서울	02-694-0943	100,000		진주종친회	會長圭	0591-53-3696	1,000,000
30	在 相	부산	051-242-0400	200,000	30	熙 洙	서울	02-551-6180	300,000
30	在 相	대구	053-555-3377	100,000		千 基	서울	02-771-1820	100,000
26	鍾 元	서울	02-739-7913	100,000	27	慶 植	합천	0599-32-6164	100,000
30	石 圭	경기	032-63-4677	100,000	30	鍾 國	경기	032-671-0003	200,000
25	鍾 元	인천	032-811-7511	300,000	29	鴻 佐	서울	02-555-1403	100,000
30	石 相	서울	02-248-4197	200,000	31	相 彦	마산	0551-45-0117	100,000
28	相 相	서울	02-556-1233	100,000	29	浩 燮	서울	02-866-0969	100,000
31	良 洙	서울	02-467-2268	100,000		合 計			7,520,000
28	鎮 學	서울	02-270-8520	100,000					

**昌原慶一高等學校**  
理事長 卞 在 貞  
三〇世(二七年生)

경남 창원시 중앙동 一五  
학교: 〇五五一-一八五一〇四五六  
전화: 〇五五一-一八五一〇四五七

**江原道 東海警察署**  
警正 卞 昌 燮  
二十九世(三六年生)

전화: 〇三九四-一三三-一七〇〇〇  
자택: 〇三六-一-二六-一九六二二

**釜山長箭國民學校**  
校監 卞 洛 文  
三〇世(三三年生)

부산 금정구 장동 一洞山 一四의 一  
전화: 〇五一一-一五二-三五六七四  
자택: 〇五一一-一八〇五-二〇〇五

**경북문경농지개발조합**  
조합장 卞 鍾 逸  
二十六世(二九年生)

경북문경군 상안면 봉림리 二五-一四  
전화: 〇五八一-一五二-三四〇六  
자택: 〇五八一-一五二-七八七六

**亞細亞住宅開發(주)**  
會長 卞 相 浩  
二十八世(二八年生)

서울 서초구 잠원동 七六一-五  
국영빌D 三〇一호  
전화: 〇二-五九六-一四五一  
자택: 〇三-四三三-四五一四七五

**祝 發 展**







# 연재 (2) 忠武公 李舜臣의 난중일기속에서

二十七世 詰奎

忠武公 李舜臣장군의 亂中日記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한 孝誠心을 적어 놓은 孝行만을 골라서 수록함으로써 당대의 우리의 조상들이 절어온 孝道를 더듬어 보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상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전(戰場)에서도 어머니를 그리고 생각하신 李忠武公의 孝誠심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계기를 삼고저 한다.

壬辰年 一五九二년 선 七月二十二日 위가 돌  
조三五년 (四八세) 아오다 어머니께서  
一月一日 아우 여필과 二月二日 어머니 편  
조카봉(魏臣의 子) 二月二日 이른 아침  
과 아들 회가 와서 二月二日 어머니 편  
이야기하다 다만 어 二月二日 어머니 편  
머니를 떠나 남도에 二月二日 어머니 편  
서 두번이나 설을 二月二日 어머니 편  
세니 간절한 회포를 二月二日 어머니 편  
이길 길이 없다. 二月二日 어머니 편  
一月七日 조카 봉이 아 二月二日 어머니 편  
산을 가다. 二月二日 어머니 편  
一月二十三日 둘째 형 二月二日 어머니 편  
요신의 제삿날이다. 二月二日 어머니 편  
一月二十四일 큰형 회 二月二日 어머니 편  
신의 제삿날이다. 二月二日 어머니 편  
二月八日 정오에 활을 二月二日 어머니 편  
쏘는데 조이림(趙而 二月二日 어머니 편  
立)과 변조서(卞存 二月二日 어머니 편  
緒)가 자음을 다투  
다가 조카 지다. 二月二日 어머니 편  
二月十四日 아산 모친 二月二日 어머니 편  
께 문안차 나장(羅 二月二日 어머니 편  
將 使命의 하나) 二月二日 어머니 편  
두명을 보낸다. 二月二日 어머니 편  
三月四日 아산문안차 二月二日 어머니 편  
던 나장이 돌아오  
다. 二月二日 어머니 편

甲午年 一五九四년 선 五月二十四日 아들 회  
조二七년 (五〇세) 아오다 어머니 편지를  
一月一日 어머니를 모 五月二十四日 아들 회  
시고 같이 한 살을 五月二十四日 아들 회  
더 하게 되니 난리 五月二十四日 아들 회  
중에서도 다행한 일 五月二十四日 아들 회  
이다. 五月二十四日 아들 회

乙未年 一五九五年 선 六月二十二日 아들 회  
조二八년 (五一세) 아오다 어머니 편지를  
一月一日 병든 八〇노 六月二十二日 아들 회  
치를 생각하며 경건 六月二十二日 아들 회  
히 밤을 새우다. 六月二十二日 아들 회  
一月五日 조카 봉과 아 六月二十二日 아들 회  
들 위가 와 어머니 六月二十二日 아들 회  
편안하시다. 다행 六月二十二日 아들 회  
이다. 六月二十二日 아들 회

丙申年 一五九六年 선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조二九년 (五二세) 아오다 어머니 편지를  
一月一日 새벽 두시에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어머니께 들어가 뵈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다. 저녁에 어머니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께 하직하고 본영으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로 돌아오니 심란하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여 밤새도록 잠을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자지 못하다.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一月十七日 변조서와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조카 분이 같은 배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로 떠나다. 七月十四日 이상록 등

## 祝 發 展

창원 지방 법원 소송  
(집) 달 관 실  
소장 卞 載 雄  
三十世(四四年生)

韓國海運組合  
馬山支部 運輸管理室  
室長 卞 佐 彦  
三十一世(四三年生)



慶南馬山市合浦區月浦洞一街六  
전화: 〇五五-一四四-〇二七  
자택: 〇五五-一四四-五五五

## 宗報發展을 祝賀합니다。

卞氏 馬山 宗親會  
會長 卞 以 植  
二十九世(三二年生)

副會長 卞 命 貴  
二十五世(三六年生)

副會長 卞 在 貞  
三十世(三七年生)

宗 員 一 同



# 허생전(許生傳)

連載(2)

서울 목동에서 10년간 글을 읽으려던 허생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기고 7년간의 글을 읽고 집을 떠나 서울 장안의 제일 부자인 마포부자(下承業의 祖父)를 찾아가 돈 만량을 빌려 가지고 안성에 가서 제수에 소요되는 대추 밤 감 배 등 과실을 모리하여 두 배를 주고 사 쟁겨 놓았다가 10배에 되 파는 풍리를 하여 돈을 벌고 다시 제주도에 건너가서 것과 망진을 만드는 말총을 몽땅 사 모아 다시 10곱의 장사를 하여 거금을 벌어서 안찰할 만한 곳을 찾던 중 장기(長崎)에 있는 섬을 찾아가게 된다.

「자네, 만일 나를 그 곳으로 이끌어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릴 거야.」 허생은 그의 말을 좇았다. 이에 곧 바람 편을 타서 동남 쪽으로 그 섬에 들어갔다.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 바라 보며, 「땅이 천리가 채 못되니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나 토지가 기름지고 샘물이 달콤하니 다만 이곳에서 부가(富家翁)의 노릇을 하겠구나.」

「자네, 만일 나를 그 곳으로 이끌어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릴 거야.」 허생은 그의 말을 좇았다. 이에 곧 바람 편을 타서 동남 쪽으로 그 섬에 들어갔다.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 바라 보며, 「땅이 천리가 채 못되니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나 토지가 기름지고 샘물이 달콤하니 다만 이곳에서 부가(富家翁)의 노릇을 하겠구나.」

「자네, 만일 나를 그 곳으로 이끌어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릴 거야.」 허생은 그의 말을 좇았다. 이에 곧 바람 편을 타서 동남 쪽으로 그 섬에 들어갔다.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 바라 보며, 「땅이 천리가 채 못되니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나 토지가 기름지고 샘물이 달콤하니 다만 이곳에서 부가(富家翁)의 노릇을 하겠구나.」

「자네, 만일 나를 그 곳으로 이끌어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릴 거야.」 허생은 그의 말을 좇았다. 이에 곧 바람 편을 타서 동남 쪽으로 그 섬에 들어갔다.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 바라 보며, 「땅이 천리가 채 못되니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나 토지가 기름지고 샘물이 달콤하니 다만 이곳에서 부가(富家翁)의 노릇을 하겠구나.」

「자네, 만일 나를 그 곳으로 이끌어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릴 거야.」 허생은 그의 말을 좇았다. 이에 곧 바람 편을 타서 동남 쪽으로 그 섬에 들어갔다.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 바라 보며, 「땅이 천리가 채 못되니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나 토지가 기름지고 샘물이 달콤하니 다만 이곳에서 부가(富家翁)의 노릇을 하겠구나.」

## 詩集

### 「빛을 따라서」를 펴내다

詩人 瑞岩 卞鍾植(26世)



고 1957년 제4회 학원문학상 수상  
1978년 한국문학 신인상 당선  
문壇 21세기 문예비평가

지난 5월 30일 「빛을 따라서」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한 시인 卞鍾植(58歲)은 日本 胎生으로서 9살에 入國하여(本籍 越南 合津)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였다.  
氏는 배양고등학교 재학시(1956年) J.R. 청소년잡지(문예작품 공모시 당선)에

著書로 「木月論」 81년 「尹東柱論」 82년 「친구들에게」 85년 기타 수필 다수를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仁壽中學校에 在職中이며 韓國詩人協會 韓國文人協會 韓國PEN클럽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발간된 「빛을 따라서」의 작품 해석에서 문화평론가이신 李

**조상의 얼**  
-민속촌에서-  
卞鍾植 作

초가집 세간 하나하나에도  
조상의 얼은 숨쉬고 있다.

종일토록 베를 매달린 아낙넌  
허리가 휘도록 길쌈에 열중했었다

그런데도 사랑방 양반은  
장죽(長竹)에 담배를 재면서  
에헤 소리만 높아갔다.

그러하지만 이웃집 길흥사 만나면  
상부상조(相扶相助)에 앞장을 섰다

초가지붕 박은 영글어 가지만  
그늘진 트랙에서는  
청상(靑孀)의 함숨 땅이 내려 앉았다

최근에게 곤장(棍杖)을 치는 자들이  
그들보단 더 죄가 무겁다는 사실을 알라  
민속촌 저녁 연기 또 오르면  
조상의 얼은 이제도 숨쉰다.

**卞熙球씨 別世(30世)**

居昌의 巨族 熙球氏가 지난 5월 31일 享年 69才로 別世하였다.  
고향인 忠清南道 海美郡 大邱邑에서 1주일 간 치료하였으나 쉽게 소생치 않아 집으로 모셔오신 날 운명하시고 5日 葬으로 하여 6月 4日 居昌에서 安葬하였다.  
故人께서는 젊었을 때 居昌郡 加祚面 面長으로 近十年間 奉職하였으며 그 후 우리 卞門의 宗事에 心血을 기울이신 宗實의 人物로서 藏書閣을 建立하였고 大同譜를 發刊에도 크게 기여하신 분이시다.



曰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계명동) 先塋下에 모셨다.  
슬하에는 元起(44才) 幸起(40才)와 出系한 稚起 그리고 3女를 두셨고 孫子는 鍾綯(14才)이다.

**하**  
경남 함안군 묘산면 사체리 476번지  
전화: 055-141-2155  
팩스: 055-141-2155

**하**  
慶植  
二十七年(四三年生)

**釜山宗親會 副會長**  
成林顏料商社(수입안료전문업체)  
代表 卞源一  
二十九世(四〇年生)

**하**  
泰洙  
二十七年(三六年生)

**하**  
鍾永  
二十六世(三七年生)

**부동산중개업 총부사**  
하 鍾永  
서울서대문구 홍제3동 285-135  
전화: 02-733-8674  
팩스: 02-733-8674

**韓國鳥類保護協會**  
安國火災海上保險(株)  
鳥類保護代理店  
代表 卞正浩  
二十八世(三五年生)

**祝 發展**



# 釜山宗親會消息



그밖에 應德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浩晟총무부회장 碩재부회장을 9명의 부회장에 선출되었으며 감사와 총무부장이 50여명이 결정됐다.

신입 齋變회장은 인사

卞씨 부산 종친회는 지난 5월 23일(일) 11시 부산지구 초동동 부산어린이대공원 실내수영장 강당에서 93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宣圭(25세) 고문을 비롯한 200여 회원과 가족이 참가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厚寬(30세) 회장을 새로 선출된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있었다. 지난 5년간 부산종친회를 이끌어오면서 서민층간의 친목화합강화와 조직활성화에 진력하여 많은 공적을 쌓은 厚寬회장이 고문으로 추대되고 후임인 魯燮(29세) 월간간담만세 발행인(씨)가 선출되었다.



부산종친회 총회 광경(93.5.23)



부산종친회 임원들

말을 통해 첫째 卞門의 전통과 씨족 정통(正統)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승배 始祖公묘소 참배, 선현유적 탐방을 성실히 수행하며 둘째 부산의 일기찾기 운동을 보다 적극화하고 大宗會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셋째 기금을 계속 증대하여 언젠가는 장학사업, 회관 건립 등 회원전체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총회 직후 주식과 함께 행운권추첨등 즐거운 여흥시간을 보내고 폐막했다. 현재 부산종친회는 50여명의 이사가 매월 22일 월례회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종친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종친회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부

위 부부는 13년간이나 병고에 시달리는 시어머님을 극진히 모셔온 효성심이 지극하고 정성 과 인품이 단정하여 가족간 화목하고 이웃과 인척으로부터 효자내외로 널리 사랑받고 추앙 받아 그 미덕을 소개한다.

尹淑子宗婦님은 尹姓 洙氏와 金基順女史의 二男二女中 차녀로 태어나 大門에 시집와서 위로는 부모님과 시숙외를 위시하고 살다가 시숙내외를 떠나 분가하여 부평으로 이사 가고 보니 次男인 相鎬氏 內外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님만을 모셔 오던중 一九七八년 봄 중풍으로 문밖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一九八六年에는 눈마저 실명하여 세상을 암흑과 어둠속에 생활하시게 되니 시어머님을 극진히 모셔 왔다가 九九年八月二十九日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였다.

그러하여 一三年간 하루도 마다 하지않고 힘 들이고 고된 나날을 보내며 간호 하였으니 그 효행이 이웃과 여러 친지들에게 알려져 오고 있다.



### 孝子孝婦像 소개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산 7-1  
30세 卞相鎬 (五三·一〇·六生)  
妻 尹淑子 (五二·四·二十七生)  
원주시 종친회장 卞振洙氏 추천

### 편지를 마치고

지난해(壬申年)에 4회의 宗報가 발간되었고 금년(癸酉年)을 들어 二回の 발행을 보게 되니 제 六호가 됩니다.

한번의 宗報가 발간되기 위하여는 40여명의 기사원고와 40여명의 인명소개 희망요청이 접수되어야 하고 그것도 두 달이내에 수합되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횡수를 거듭하여 六호의 宗報가 편집완료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더욱이 최근에 실시한 宗報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한 여론조사에서 예상외로 많은 宗親들의 호응도와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문회답의 통계를 보면 宗報를 소중하게 보고 있다고 83%이고 宗報는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는다"가 46%이고

세계 宗報는 중단없이 계속 발간되어야 한다고 95%이니 참으로 놀랍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회수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알차고 보 다 양질의 宗報가 발간 되도록 노력할 것이오니 전국의 宗親들께서도 배전의 성원과 지도 편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단 광고란의 宗親 소개에 있어 너 나 없이 서로 앞장서서 활 움직임을 협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본 宗報의 중단없는 발전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 祝 發 展

鐵(株) 鋼 雙 二 龍 部

部長 卞 鎮 學

二十八世(四九年生)

서울 中區 普濟一街 四一-一 中央 圖書 四〇九

전화: 〇二一-一七〇八五〇

팩: 〇二一-五五五-一三七九四

## 변호사 김완식 법률사무소

卞 榮 燮

二十九世(三四年生)

서울 鍾路 九區 洞 二四三-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앞)

전화: 〇二一-四四五-一四〇〇

팩: 〇二一-四六四-一七七六九

## 청 명 꽃 화 원

대표 卞 鍾 時

二十六世(四五年生)

서울서초구 서초동 一四四-一-五 (진로유치원앞)

전화: 〇二一-五八六-一五九〇七

팩: 〇二一-五八二-一七二五五

## 옛 소 리 국 악 원

院長 卞 相 烈

二十八世(五四年生)

서울서초구 서초동 一五三-一-一 (대일빌딩 지하)

전화: 〇二一-五九七-一六三三六

팩: 〇二一-四三三-一五〇二九

## 국방부 평가관리관

准將 卞 照 雄

三〇世(四四年生)

전화: 〇二一-七九四-一八一四三

팩: 〇二一-三三七-一七〇六〇



진주·거창종친회 회원들(93.5.2)

### 진주·거창종친회 총회 개최

거창군 가조면 병산리에서 (九三、五、二) 지난五月二日 진주종친회 회원 四十여명은 대형버스에 가득히타고 七시에 진주를 출발하여 합천에 들러 시조공(始祖公) 묘소에 참배하고 다시 거창(居昌)에 있는 재실과 장서각(春堂公諱仲良의文集을 인쇄하는木板을 보관한 곳)을 찾아 顯祖를 제쳐 남긴 유적(遺蹟)을 참관하고 송고한 匾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병산리에서 마련한 점심을 즐겁게 먹고 총회를 하여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현 재 卞會長이 유일되고 전임



5月2日 晉州宗親들이 거창을 방문하였을 때 장서각 앞에서 목판(木板)을 들고 포즈를 취하신 熙球氏의 모습.



장서각